

## 지역 소식



## 본부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회장단 한국 방문: 여러분의 특별한 은사로 봉사하십시오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는 2017년 4월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아부르토 자매는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회 등 와드 및 스테이크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2012~2016년까지 초등회 본부 임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 내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을 체계화하고, 초등회 온라인 자료를 개선하는 등의 일을 담당했다.

니카라과에서 태어난 아부르토 자매는 중앙아메리카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산업 공학을 공부했으며,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준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93년 유타 조던리버 성전에서 멕시코 출신인 카를로스 아부르토와 결혼했다. 이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개종자이며, 세 자녀와 두 명의 손주를 두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작은 번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는 2017년 4월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프랑코 자매는 초등회, 청년, 상호부조회 조직의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했다. 또한 2005부터 2010년까지 초등회 본부 임원회에서 봉사했다.

프랑코 자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으며, 세 살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교회로 개종했다. 프랑코 자매는 초등회에서 로돌포 프랑코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1978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프랑코 자매는 아르헨티나 레시스텐시아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이었던 남편과 함께 봉사했다.

1977년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프랑코 자매는 가족들과 함께 유타로 이민했으며, 시계공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28년 동안 시계 수리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업에 종사했다.

**본** 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와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인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가 지난 3월에 한국을 방문했다. 3월 1일 금요일 저녁에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부르토 자매와 프랑코 자매는 3월 2일 토요일에 서울 신당 와드에서 포커스 그룹 모임, 상호부조회 및 초등회 지도자 훈련 모임을 열었다. 3일 일요일 오전에 아부르토 자매는 청주 스테이크 대회에도 방문하여 연사로서 말씀했으며, 같은 시간에 프랑코 자매는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에 방문하여 초등회 어린이들을 만났다. 일요일 저녁에는 영등포 와드에서 영적 모임을 열었으며, 이 모임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모든 모임 일정에 북 아시아 지역 회장인 최윤환 장로 부부가 동행했으며 일요일 저녁 영적 모임에는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부부들이 모두 참석해 말씀을 전했다.

아부르토 자매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 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소감과 함께 성도들의 모범에 찬사를 보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성도들의 모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개 숙여 인사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존중, 감사,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하는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상대방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가?’라고 자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부르토 자매와 프랑코 자매는 바쁜 일정 동안 시간을 쪼개어 회원 가정을 방문하는 등 성역을 베푸는 모범을 보였다. 이들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환대받았는데, 특히 기관지염을 앓던 프랑코 자매가 기침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사랑을 가져다주며 그의 건강을 함께 염려했다.

5일 화요일, 출국 전에 아부르토 자매는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이자 판사였던 조배숙 국회 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아부르토 자매와 프랑코 자매는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일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아부르토 자매와 프랑코 자매가 모임에서 전한 말씀의 요약은 이곳에 게재한다.

#### **포커스 그룹 모임: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월 2일 토요일 오전에 신당 와드에서 열린 포커스 그룹 모임에서 최윤환 장로 부부, 아부르토 자매와 프랑코 자매는 서울, 경인 지역 스테이크 여성 지도자들과 만나 가정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교육 과정, 성역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변화된 교회 정책하에서 어머니가 가정의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아부르토 자매와 프랑코 자매는 입을 모아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부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프랑코 자매는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며 팀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아부르토 자매는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자녀들이 어릴지라도 경전을 읽고 배운 것을 가족에게 나누어 달라고 자녀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의 딸이 9살 되었을 무렵에, 첫번째 시현에 대해 배운 딸에게 가정의 밤에서 공과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인물 그림에 색을 칠하고 종이를 잘라 막대기를 붙여 인형을 만든 후에 실물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딸의 공과를 들으며 특별한 영을 느꼈습니다.”

최윤환 장로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음을 언급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정에서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심을 깨닫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서울, 경인 지도자 훈련 모임: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오후에 이어진 와드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함께한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아부르토 자매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다. 봉사하며 생겼던 궁금증이나 고민이 쏟아졌고, 아부르토 자매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이용하여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또한 그룹 토론을 이끌어, 봉사하며 경험한 기적을 서로 나누도록 하고 그들의 봉사를 치하했다.

“상호부조회는 한 건물의 한 교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호부조회는 활동도 아닙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상호부조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번 주에 상호부조회 모임을 하든 하지 않든지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상호부조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신권 열쇠를 지닌 형제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사업이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프랑코 자매 역시 초등학교 역원들을 훈련하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코 자매는 초등학교 '노래 부르기 시간'을 통해 어린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전했다.

“어린이들은 어린 씨앗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노래 부르기 시간에 그저 가사만을 익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가 가사 속에 담긴 복음 원리와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침례'에 관한 노래를 배운다면 어린이에게 침례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왜 침례가 중요한지 물어보고 함께 경전 구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라 삶의 시련과 마주할 때 어린 시절에 배운 찬송가의 가사와 단순한 진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분반 훈련 후에 북 아시아 지역 회장 최윤희 장로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초등학교,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넬슨 회장님은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 그것들을 키우고 활용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2018년 10월 연차 대회)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하십시오. 우리의 봉사가 작고 미약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라는 바다에 우리의 노력을 조금씩 더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내면의 힘을 조금씩 모으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 지역 단위 조직 방문: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3월 3일 일요일에,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가르히코 야마시타 장로의 감리로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아부르토 자매는 가정에서, 또는 부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영적인 통찰을 전했다.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라반의 판을 취하기 위해 또 이스마엘의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 차례 들어간 것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니파이전서 3~6, 7장 참조)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배움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강해집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하기보다는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한편 프랑코 자매는 서울 스테이크 일산, 파주 와드의 합동 초등학교에 참석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났다. 자신이 처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유년기의 경험을 나누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했다. “기도를 드리면 즉각적인 응답이 오기도 하고 응답이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응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나 혹은 행복할 때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 전국 영적 모임: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가정을 보호하십시오

3일 일요일 저녁에, 아부르토 자매와 프랑코 자매는 영등포 와드에서 마지막 공식 모임으로서 전국 영적 모임을 열고 모든 회원과 비회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아부르토, 프랑코 자매 모두 부부가 함께 나란히 연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 이 모임은 교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한국 성도들 사이에서는 최근 교회의 여러 변화들, 즉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계획, 성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아부르토 자매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통해 회원들이 교회 정책의 변화와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함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다.





“모로나이는 니파이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읍 주위에 흙덩이를 파 올리고 목재 구조물과 망대를 견고하게 쌓았습니다.(엘마서 50:1~6 참조) 대적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로나이처럼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 등을 할 때 가정을 둘러싼 안전한 구조물을 짓는 것입니다. 가정의 밤을 할 때 외형적으로 완벽한 형식을 갖추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모든 가족 활동은 가정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거나, 식사하면서 경전을 읽고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을 반복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가정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프랑코 자매의 말씀 전에 최윤환 장로의 제안으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부부, 본부 역원 부부, 선교부 회장 부부가 차례대로 각자의 모국어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다. 한국어로 찬송을 부를 때에는 모든 회중이 일어나 함께 노래했으며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어 연사로 나선 프랑코 자매는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경험을 나누며 성전의 축복에 관해 간증했다. 남미에 성전이 없던 시절에, 감독으로 봉사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교회로부터 솔트레이크 성전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표 한 장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네 자녀를 위한 비행기 표를 구할 돈을 저축했지만 나날이 높아지던 달러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미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비회원 삼촌은 자녀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라며 온 가족의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저액의 돈을 기꺼이 내주었다.

프랑코 자매는 이렇게 회상했다. “물론 우리 가족은 디즈니랜드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는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받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소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전의



축복과 성약의 길에 남아 있는 것의 중요성은 그날 이후 제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fb.com/churchofjesuschristkor에서 모임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

### 아부르토 자매, 국회 의원 조배숙 의원과 대담

3월 5일 화요일에, 아부르토 자매는 출국 전에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이자 판사였던 조배숙 국회 의원을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조배숙 의원은 1979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신앙인의 삶을 이어 왔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같은 토대 위에서 조 의원과 아부르토 자매는 종교와 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나누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한국 사회에 기독교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관이 정책, 문화, 유행의 모습을 띠고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와 제도에 관심을 두고 정치가 종교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세속적인 가르침을 방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저는 기독교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기독교의 가치를 거세게 반대하는 세력과 최전방에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와 정책이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힘을 뭉쳐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교,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와 원리를 국민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에 상반되는 가치와 원리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조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아부르토 자매는 “올바른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원리는 개인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개인들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의원님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함께 읽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동시에 기독교인이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족 제도와 전통적인 가치를 보호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

# 헬핑핸즈,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에 구호 물품 전달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 정도로 작은 일이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바닷물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테레사 수녀의 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201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인용함



**20** 19년 4월 19일 오전에, 서울 동 스테이크 헬핑핸즈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돕고자 구호 물품을 속초 시청에 전달했다. 물품 수집 공지부터 약 일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 전국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및 비회원들이 보내온 구호 물품은, 1톤 트럭을 뛰어넘는 양이었다.

##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구호 물품 지원 행사는 한 어린아이의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4월 4일에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불은 사흘간 약 531만 평(축구장 2460개 규모)를 태웠으며, 산불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은 1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재해와 어려움이 여러 미디어로 전해지자, 교문 와드의 초등학교 어린이 하나가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라고 그의 부모에게 질문했다.

그 부모는 즉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헬핑핸즈 위원회로 전달했고,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단의 결단으로 4월 12일 전국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및 지인들에게 물품 전달 행사에 관한 공지가 포스터와 함께 전달되었다.

## “피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 동 스테이크 헬핑핸즈 위원회는 속초시청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아서 처리가 곤란해질 물품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의식주 중 식료품이 가장 급하며, 밥보다는 반찬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물품과 함께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 양주의 집결지로 배송된 물품을 분류하고 속초시로 전달할

“인력”이었다. 물품 분류와 전달 작업에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즉시 봉사자들이 양주로 모였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선교사, 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봉사자 등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모인 이들이었다.

## “겨우 7일 동안, 얼마나 모일까?”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물품이 수집되는 기간은 닷새뿐이었기 때문에 많은 동 스테이크 헬핑핸즈 운영 위원회 회원들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실제로, 마감 이틀 전까지도 배송되어 오는 물품이 너무나 적었다. 동 스테이크 헬핑핸즈 담당 고등평의원인 이주대 형제는 행사 마지막날이었던 18일에 물품 운반용 차량을 확인한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행사 7일 중 6일은 걱정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송 트럭에 가득 찬 물품을 확인했을 때,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장 및 분류 작업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이렇게 전했다. “트럭이 꽉 차 심지 못한 10여 개의 박스를 보고 너무 걱정됐어요. 누군가의 성의와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다시 트럭에 실린 물품을 내려서 포장을 뜯고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한 번 더 했어요. 봉사자들의 수고로 재포장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물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트럭에 실었을 때 정말 뿌듯했고, 저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주대 형제와 함께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감독인 한승수 형제가 아침 7시에 직접 트럭을 몰고 속초 지역까지 물품을 운반했다. 속초시 관계자들과 선교사들이 물품을 하차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시청 직원들은 “많은 기업에서 물품을 기증하지만, 단일 봉사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물품을 전달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소중한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기업이나 단체들의 라면과 물 위주의 물품에 헬핑핸즈의 반찬과 이불이 더해져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최근에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은 김현수 장로는 “이 행사는 봉사의 노력이자 실천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



##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함

지난 4월 6일 제189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김현수 형제가 북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았다.

김현수 장로는 1965년에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출생 직후에 부모님이 개종하셨기에 김 장로와 삼 형제는 복음 안에서 성장했다. 대구 지방부(현 대구 스테이크) 소속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84년에 온 가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인근 지역으로 이민했다. 그는 1988년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1991년에, 당시 소속 지부였던 샌 페르난도 밸리 한인 지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홍성미 자매를 처음 만났다. 홍 자매가 귀환한 후 1991년 12월에 로스엔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다.

김현수 장로는 1992년에 유타주 프로보로 이사했으며, 브리검 영 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MBA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유타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유니시티 인터내셔널 회사에 입사했으며 2005년 1월에는 한국지사장으로 발령받았다. 현재는 본사 사장으로 회사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수 장로의 부모는 그에게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가르쳤다. 또한 '한국에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한국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 김 장로 부부는 1997~2002년과 2005~2007년에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영동 스테이크(현 경기 스테이크) 소속으로 다양한 부름을 수행했다. 이후 태국으로 발령받은 김 장로는 가족과 함께 방콕에서 7년간 거주했다.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현재 주어진 환경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영감에 따라 김 장로는 방콕 외국인 와드에서 감독단, 청남 회장단,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충실히 봉사했다. 2015년 여름에, 오랜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으로 다시 발령받았으며 2015년 9월에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현 동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아 3년 6개월가량 봉사했다.

김현수 장로는 물론경의 '힐라맨의 이천 용사'를 삶의 본보기로 삼고 그들의 신앙과 태도를 닮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한다. "힐라맨의 이천 용사가 포악한 레이맨인과 맞서 싸웠듯이 우리 역시 삶에서 대적의 유혹을 마주합니다. 낙오, 시련, 실패 등도 마주합니다. 았마서는 힐라맨의 어린 이천 아들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큰 기적과 축복을 받았는지 알려 줍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명령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며 준행하였으며'(앨마서 57:21 참조)

이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신앙대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현수 장로는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은 소감에 관해 "생각지도 못했던 부름이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이 부름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충실히 봉사할 것입니다."라며 결의를 드러냈다.

또한 "한국 땅에 회복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노력으로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가르침을 기억해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알고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고 배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자신의 비전과 간증을 덧붙였다. ■



# 2019 지역 연합 청년 대회, 바다를 건너 하나가 되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발표에 따라, 북 아시아 지역 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2019 지역 연합 청년 대회가 2019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 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열린다.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가 대회장으로, 새로 부름받은 지역 칠십인 김현수 장로가 부대회장으로 각각 부름받았다. 서울 남 스테이크의 권영준 회장과 박경렬 형제가 각각 운영 위원장과 준비 위원장을 맡았으며, 준비 및 운영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회장으로 부름받은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대회 기간이지만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격려가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대회의 목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자유로운 백성이자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라며 “2019 지역 연합 청년 대회에 모든 청년들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역 연합 청년 대회가 기존의 대회와 다른 점은 한국뿐 아니라 북 아시아 지역 내 일본, 괌 및 미크로네시아의 청년들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북 아시아 지역의 모든 청년이 함께 청년 대회를 여는 것은 이 지역 최초의 일이다.

2019 지역 연합 청년 대회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이다. 이는 교리와 성약 38편 27절의 “보라, 이를 내게 비유로 너희에게 주었거니와, 이는 참으로 나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구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운영 위원회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위해, 또한 준비 위원회는 차질없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 지역 연합 청년 대회의 참석 대상은 약 1500명이다. 청년 대회 운영 및 준비 위원회는 이러한 규모를 예상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후기 성도들의 하나됨이 요구되는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과 미크로네시아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각 국가의 청년들이 하나로 화합하여 서로의 신앙을 강화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북 아시아 지역 외 다른 국가에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대회 기간: 2019년 8월 15~17일 (목~토요일)
- 대회 장소: 경기 대학교 수원 캠퍼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참가 대상: 1988~2000년에 출생한 모든 청년 독신 성인, 1983~1987년에 출생한 독신 성인은 감독 및 지부 회장의 추천이 있다면 참석 가능
- 참가 신청: 공식 홈페이지 [www.ayc2019.net](http://www.ayc2019.net)에서 가능
- 참가 신청 기간: 6월 말까지
- 문의: [fb.com/2019ayc](https://fb.com/2019ayc) 방문해서 메시지 보내기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9명



**강경민 장로**  
경기 스테이크  
평택 와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선교부



**구본연 장로**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김동하 장로**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부산 선교부



**김세리 자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부산 선교부



**김에진 자매**  
서울남 스테이크  
송파 와드  
영국 런던 선교부



**김해승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타이완 타이중 선교부



**문세희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부산 선교부



**박다찬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박민준 장로**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선교부



**박시온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선교부



**성유리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승유진 자매**  
대전 스테이크  
대전1 와드  
부산 선교부



**안광윤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양현슬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부산 선교부



**유소랑 자매**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서울 선교부



**윤단인 자매**  
경기 스테이크  
분당 와드  
대전 선교부



**윤모습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이가는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선교부



**이규배 장로**  
부산 스테이크  
김해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선교부



**이동규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부산 선교부



**이아빈 장로**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부산 선교부



**이우석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대전 선교부



**정우찬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서울 선교부



**정지혜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와드  
부산 선교부



**최민석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부산 선교부



**최정윤 자매**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  
서울 선교부



**최주영 자매**  
대전 스테이크  
대전1 와드  
서울 선교부



**하종석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부산 선교부



**황희철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lds.or.kr](http://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https://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
- 배부 센터: 080-238-8000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경기 스테이크**  
이천 와드 감독: 홍갑표 형제(전임: 이혜근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최일광 형제(전임: 김현수 형제)  
제1보좌: 박진수 형제  
제2보좌: 김진식 형제

**서울 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감독: 배판봉 형제(전임: 최채현 형제)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회장: 정대일 형제(전임: 김용경 형제)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와 중앙 와드의 경계가 조정되고, 전주 와드가 덕진 와드로, 중앙 와드가 완산 와드로 변경됨  
덕진 와드 감독: 홍기섭 형제(전임: 박성민 형제)